

증편도 못하고, 유류할증료 오해까지... 항공사 '속앓이'

항공료 가격 증가에 불만 ↑
“유류할증료 승객부담” 지적
수요대비 공급 부족 주요 원인
“실수요 파악 어려워, 시간 소요”

“고유가라고 해도 항공료 자체가 이렇게까지 비쌀 일인가? 유류할증료는 승객이 내는데 고유가라 항공사가 증편이 쉽지 않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던 A씨는 떨어지지 않는 항공료에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유류할증료는 올해 2월부터 최고치를 매달 경신하고 있어 항공권을 구매하는 승객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하지만 항공권을 알아보는 소비자들의 불만소리는 항공사로 향하고 있다. 아무리 고유가로 항공료가 비싸졌다고는 하지만, 유류할증료는 승객이 부담하는데 항공사가 이제껏 적자를 무마하기 위해 항공료를 비싸게 책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소문까지 불거지고 있다.

대한항공의 6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비행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3만 7700원~27만 9500원으로 19단계(최고 33단계)를 기록했다. 5월(3만 3800원~25만 900원)과 비교하면 한 달 사이 2만



코로나19로 축소됐던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운항이 지난 8일부터 정상화 됐지만 증편은 더디고 항공료 가격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인천공항에서 발권을 하고 있는 승객들의 모습. /뉴스시스

원 이상 올랐으며 지난 2월에 비해 13단계 오른 모습이다. 승객이 많은 인천~하노이 편도 노선의 경우는 2월 유류할증료는 2만 4000원이었는데, 현재는 8만 8400원을 내야 해 3배 이상 뛰었다. 4인 가족이 해외여행을 계획한다면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편도로 여행했을 때 기준이기 때문에 왕복으로 구매시 2배가 되는 셈이다.

항공사 유류할증료는 항공사의 유류비 보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항공사

는 유가에 따라 기본 운임을 조정하는 대신 승객들이나 화물의 기본운임에 별도로 부과한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 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되는 항목으로 갤런당 센트 가격이 150센트 밑이라면 부과되지 않는다. 실제로 2016년 11월 국제선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가 없었던 때도 있었다.

더불어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하는 항목이며 국내

선은 운항 거리와 상관없이 동일한 유류할증료가 책정된다. 항공사는 노선을 신설할 때 국토부에 신고한 최대 가격을 넘지 않은 선에서 자율로 표 값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매달 중순 다음 달 유류할증료를 고지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사태 완화와 여행 수요 폭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국제선 도착 편수 제한을 포함한 각종 방역 규제를 풀었다. 하지만 규제를 풀 효과는 항공권 가격에도 증편에도 가지적인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항공료가 오른 주요 요인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따라주지 않아서라는 이유가 대표적이다. 이라다보니 항공사가 규제는 다 풀렸는데도 증편을 더디게 해서 항공권 가격이 안정이 안 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항공사에게도 사정은 있었다. 항공사들이 노선별 실수요를 파악하고 증편을 결정하려면 소요되는 최소 시간이 필요해서다. 대형항공사(FSC) 관계자는 “노선 수요를 빠르게 파악하고 있다”며 “휴직·휴업 직원 복귀까지 감안하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해 일괄적으로 노선 수요를 따지지 않고 증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유인즉, 수요 없는 증편을 했다가

는 ‘빈자리’로 항공기를 띄우게 되고 그 부담은 전부 항공사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항공사들은 노선별로 증편 속도는 다르겠지만 공급 부족이 실제로 보이는 미주와 유럽, 동남아를 중심으로 운항을 확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승객(만 2세 미만)은 면제대상이다. 오는 7~8월 성수기에도 유류할증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7월에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라면 빠른 예매가 좀 더 유류할증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항공업계는 고환율 상황까지 겹쳐버리는 바람에 업황 회복이 더디다고 분석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환율 10원이 변동하면 약 410억원의 외화평가손익이 발생하고 있어 고유가·고환율은 항공권 가격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

항공사 관계자는 “물론, 구매 후 탑승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돼도 추가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유류할증료가 인하돼도 항공사가 환급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소비자는 기억해야 한다”고 “하지만 고유가·고환율 장기화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봤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LG화학, GS EPS와 친환경 에너지 ‘맞손’

사업장 에너지 바이오매스 구축
연간 40만톤 탄소배출 저감 기대

LG화학이 청정에너지 기업인 GS EPS와 ‘바이오매스 기반 친환경 에너지 사업 협력을 위한 기본합의서(HOA)’를 체결했다.

13일 HOA를 맺은 두 회사는 가정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목재 폐기물을 우드칩 형태로 만든 재생에너지 연료를 사용할 계획이다. 산림 자원의 직접적인 에너지화가 아닌 통상 소각·매립하는 자원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환경 규제가 강화된 유럽연합(EU)에서도 폐목재를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로 인정하고 있다.

LG화학이 GS EPS는 협약에 따라 2025년까지 LG화학 여수공장에 폐목재로 산업용 증기·전기를 생산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합작 설립하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다. 또한, 전력거래소 협조

로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거래계약(PPA·Power Purchase Agreement)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 기회를 함께 모색하며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합작법인이 설립되면 LG화학은 석유화학 공장과 단지 가동에 필요한 증기(열원)를 바이오매스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40만톤 규모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소나무 280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다.

GS EPS는 국내 최초 민간 발전사로 충남 당진에 아시아 최초 100MW급 바이오매스 발전소 1·2호기를 운영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와 발전 분야에서 축적된 사업 역량과 운영 노하우·공급망 네트워크 등을 합작사업에 접목해 사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

다. 양사의 협업은 지속 가능한 연료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앞당기고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찬수 GS EPS 대표는 “GS EPS가 보유한 바이오매스 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LG화학의 넷제로(Net-Zero) 달성에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국래 LG화학 석유화학사업본부장은 “이번 협력으로 넷제로 달성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밸류체인에서 탄소중립 전환을 가속화해 급성장하는 친환경 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SW 업데이트

와인관리 등 기능 확대

삼성전자 비스포크 냉장고도 스마트싱스 홈 라이프에 동참한다.

삼성전자는 13일부터 비스포크 냉장고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싱스 홈 라이프는 통합 가전 솔루션으로, 인공지능 기반으로 모든 가전 제품을 사용자에 맞춰준다. 지난 2월 쿠킹·에어 케어·펫 케어·클로

딩 케어·에너지·홈케어 등 6개 카테고리 시작한다.

우선 와인 냉장고에 적용됐던 쿠킹 카테고리 ‘소믈리에앳홈’ 기능이 비스포크 냉장고와 비스포크 큐브 냉장고로 확대된다. 스마트폰으로 와인 라벨을 촬영해 원하는 정보를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보유하고 있는 와인과 잘 어울리는 요리를 추천해주기도 한다. 7만건 이상 데이터베이스로 기본 정보뿐 아니라 알콜 도수와



바디감, 산미와 타닌 정보 등도 확인 가능하다. 스마트싱스 쿠킹에서 ‘와인 페어링’과 ‘미트 러버 레시피’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김재용 기자 juk@



“美 타임스퀘어 LG 전광판에 ‘다스베이더’ 떴다”

다스베이더가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나타나 올레드 TV를 추천했다. LG전자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새로운 올레드 TV 광고 영상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스타워즈 신작 드라마 ‘오비완 케노비’를 활용했다. 다스베이더가 우주선에서 등장해 광선검을 휘두른 후 ‘올레드 TV로 보세요’라는 메시지를 남긴다.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상영 중인 LG 올레드 TV 광고.

/LG전자

현대차, 연구개발본부 AI 경진대회 개최

현대자동차가 ‘제2회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 AI 경진대회(이하 AI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로 두번째를 맞는 이번 ‘AI 경진대회’는 현대차 연구개발본부 실무자와 대학(원)생이 팀을 이뤄 실제 연구개발 현장에서 발굴된 문제점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개선하는 프로젝트형 경진대회로 시행된다. 이달 2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모집요강 및 일정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I 경진대회’에 선발되는 30명의 참여자는 현대차 연구원과 팀을 이뤄 실무 현장에서 발굴된 개선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현대차는 참여자의 연구개발 환경에

대한 이해와 실효성 있는 프로젝트의 완수를 위해 ▲남양연구소 현장투어 ▲직무 멘토링 ▲전문교수 정기코칭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고, 참여한 인원의 역량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AI 경진대회’에서는 작년에 비해 약 2배 규모의 인원을 선발하는 만큼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혜택도 확대했다.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200만원)가 지급되고, 우수팀으로 선정 시에는 비슷한 규모의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원 ‘현대자동차 R&D AI 경진대회 활동 증명서’가 발급되고, 동료 평가 최소기준만 만족해도 주관부서 인사 지원 시 서류평가를 면제하는 등 참여자의 경력개발도 돕는다.

/양성운 기자 ysw@